

건축사대회를 마치고

After the Congress of Architects

12년 만에 부활한 전국건축사대회가 향도 부산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양일간 4,500여 회원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건축문화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서 주관한 본 행사는 몇 가지 새로운 기록들을 수립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는 본 협회를 떠나 시·도 건축사회에서 주관한 것이요, 둘째는 회원의 의무참석에서 자율참석으로 전환된 것이고, 셋째는 지방에서 개최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금세기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인 점이다. 위와 같은 것은 대회 전에 이미 예정된 기록들인 바, 이를 비견해 평가한다면 본 대회는 한마디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성공적이라고 평하는 첫째 이유는 회원의 참석률로서, 참석한 모든 회원과 이를 독려하고 권면한 시도회장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싶다.

애초 주최자인 본 협회나 주관부서인 부산건축사회는 과거와 다른 자율참석과 불경기 그리고 전회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가 부산이라는 거리관계 때문에 회원 참석률이 저조할 것을 우려하였으며,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가족 동반을 권유하고, 그 모두가 대회장에 입장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서울가족 650여명을 비롯하여 4,500여 회원가족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회원만 놓고 볼 때는 4,000여명으로 회원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이나 서울 경기회원을 제외하면 여타 시도는 대부분이 참석한 셈이다. 또한 가족 모두가 대회에 참석함으로써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뜨거운 건축사들의 열기를 보여준 것은 망외의 소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는 박신욱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60여명 부산집행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이를 뒷받침한 부산회원 전체의 힘이라고 본다. 금년 3월 본 협회의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동한 본 대회 집행위원회 77명 위원들은 모두가 본업을 핑계할 정도로 헌신하였으며, 특히 부산위원들 중 몇 명은 날밤을 새우는 일도 있었다. 그렇기에 공의 선후가 뒤바뀌지 않았는가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하여도 이를 즐길 관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참석한 회원에게 그 공을 먼저 돌린 것이다.

대회는 첫날 전국건축사 추구동호회 친선경기대회와 2004 건축문화대상을 위주로 한 야외 건축전 그리고 건축사 회화전의 개막으로

시작되어 둘째날 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을 시발로 건설사업관리(CM)세미나, 건축사대회, 건축문화혁신대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부산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렘 콜하스 등이 참여한 국제건축심포지엄과 친환경 건축자재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건축사 만남의 광장 축제로 그 막을 내렸다.

생각보다 많은 11개 팀이 참가한 축구대회는 승부를 떠나 참가한 300여회원이 시합 때는 잔디구장에서, 시합 후에는 맥주파티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 심포지엄장에는 어느 곳이나 입추의 여지가 없었으며, 특히 분협 주관 세미나에는 500명 수용에, 600부를 준비한 책자가 동이 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개막식 또한 화려하고 장엄하였다. 식전행사로 계획된 패션쇼는 회원들이 직접 모델로 참석하는 등 기획도 참신하였으며, 화려한 입장식 세레모니와 단상석을 만들지 않은 의전 등도 탈권위주의시대에 걸 맞는 기획이었다. 회원들을 위한 점심식사로도 상심한 화와 진공포장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위생과 부산특성을 모두 고려한 수작이었으며, 건축사 만남의 광장의 음식도 맛이 있었다. 고적대 퍼레이드와 자동차가 걸린 경품으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높은 점수를 줄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와 더불어 아쉬운 점도 많았다.

작게는 밤 늦게 관광희망지를 조사한다거나, 각 시·도회와 주관측의 연결고리 부실과 이로 인해 회원들이 우왕좌왕 한 것, 무더운 날씨, 나중에 정리되긴 하였으나 음료를 펼치려 불우이웃돕기 성공함을 비치한 것, 넥타이를 권장한 구태, 의전문제로 한밤까지 시간을 허비한 것이 있는가 하면, 대회 팸플렛의 글머리를 비추지 아니한 편집과 지역 광고를 우선함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 묵과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또한, 첫날이 너무나 단조로우 대회가기간이 이틀이라 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하였다. 따라서 다음 대회부터는 좀 더 풍성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대회기간과 그에 맞는 날짜별, 시간대별 특성을 살린 계획의 다양화이다. 이번 대회 첫날은 동아리 모임인 전국건축사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대회와 전국건축사 회화전 뿐이었다. 이를 등산, 골프, 볼링, 바둑, 서예 등 다양한 동아리 모임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건축사라는 동류항 속에 있으면서 취미가 같을 때, 그 친밀감은 배수로 늘어난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견고하듯, 동아리가 활성화되면 본 협회는 저절로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아리별로 대회를 치른 첫날 저녁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남의 밤 행사를 갖고, 초기처럼 시도건축사회별로 준비한 장기를 선보여야 할 것이다. 합창, 기악연주, 국악 등 다양하지 않았던가.

다음날은 학구적인 시간으로 오전을 할애하여 좀 더 다양한 심포지엄과 강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여야 하며, 가족들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과 점수도 예약제를 시행하여 다양화, 완벽화를 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대회는 점심식사 후 곧바로 시작하여 5시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함으로써, 이번 같이 내빈축사 중 차 시간 때문에 수백명이 우르르 식당을 빠져나가는 결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충분히 귀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대회의 공과와 향후 보완점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아쉬운 것을 지치되한 것이 있는 바, 대회장의 대화사와 결의문이 변형된 건의문 그리고 건축문화선언문이었다. 정작 알맹이는 어렵게 다듬은 후자의 두개에 있었는데, 장관과 정치인들이 들은 것은 미사여구로 장식된 대화서뿐이었기 때문이다. 항상 겪는 일을 이번에는 '안 그럴겠지' 한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며, 필자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알맹이를 대화사에 넣는 지혜가 앞으로 정말 필요하다. '선언문의 포인트라드 넣었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 힘들게 초창한 그들이기에 그 노력이 더욱 더 아깝다.

이제 축제는 끝났다. 그러나 끝났기 보다는 '보다 나은 다음 대회'를 위한 출발선상에 있다고 봐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치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잘잘못을 엄정히 기록하여 내일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대회를 만든 부산광역시건축사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내일을 향해 뛸 수 있는 힘이 이 대회를 통해 모두에게 용솨음치기를 기원한다. ㉞